■민족문화연구 제100호(2023.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303-328.
http://doi.org/10.17948/kcs.2023..100.303

조선본『故事成語考』연구

장연수(張硯洙)*

목 차

1. 머리말
2. 국내외 판본의 서지적 검토
3. 조선본의 간행 시기와 유통
4. 조선본의 내용상 특징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선본『故事成語考』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출판문화사적 의의를 조명한 것이다.『고사성어고』는 초학자의 기초 지식 함양과 작문 학습을 목적으로 유가의 경전 및 역사서 등에서 나온 명물과 고사를 총망라하여 분류별로 제시한 類書이다. 조선본『고사성어고』는 중국 서적이 일본을 거쳐 조선에서 간행되었다는 희귀한 내력을 지니는데, 현재까지 간본 100여 종과 사본 100여 종이 전할 만큼 민간에서 널리 유행한 서적이다. 다만 몇몇 선행연구에서 책의 특별한 이력이 언급된 적은 있으나 조선본『고사성어고』의 서지적 특징 및 현존본 현황, 간행 시기, 대상 독자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세세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조선본『고사성어고』를 종합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현재 확인되는 조선본『고사성어고』는 모두 동일한 계통이며 한 차례 重刊된 것으로 추정된다. 초간본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특정 간본과 사본에는 책의 간행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 18세기 중반부터 이미『고사성어고』간본이 유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통의 경우 주로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단 일본 간본과 조선 간본을 비교한 결과, 조선 간본에는 다량의 오류가 발견되는데 대부분

* 성균관대 한문학과 박사수료.

誤寫에 의한 誤刻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일부 내용의 의미 파악에 지장을 준다는 한계가 있으나, 수많은 간본과 사본이 현전하는 사실은 『고사성어고』가 상업출판물로서 상당히 유행했으며, 민간에서 초학자들을 위한 문장 학습서로 『고사성어고』를 활용했음을 방증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고사성어고』는 조선 후기에 상업 출판 대상이 된 서적의 성격과 그 향유층의 일단을 확인하게 하는 자료로서 일정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고사성어고』, 상업출판물, 초학자용 유서, 『유학경림』, 『유학수지』.

1. 머리말

『故事成語考』는 초학자의 기초 지식 함양과 작문 학습을 목적으로 유가의 경전 및 역사서 등에서 나온 명물과 고사를 총망라하여 분류별로 제시한 유서이다. 원 편찬자는 明代 학자 丘濬(1420-1495)으로 알려져 있으며 『幼學須知』, 『幼學瓊林』 등의 서명으로도 전해진다. 또한 일본과 조선에서 각각 간행되어 널리 애독되었다. 이 책은 다소 희귀한 내력을 지니고 있는데 바로 일본에서 간행된 중국 책이 조선으로 유입되어 민간에서 상업 출판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학자 荒川秀가 1681년에 쓴 서문과 中島義方이 1682년에 쓴 발문이 삭거되지 않은 채 조선에서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국 서적이 일본을 거쳐 조선에 전래되어 간행된 예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조선본 『고사성어고』는 출판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조선본 『고사성어고』는 현재까지 확인된바 간본이 100여 종, 사본이 100여 종 가까이 전하고 있어 당시 민간에서 상당히 유행했던 책으로 보인다. 『고사성어고』를 학계에 최초로 보고한 연구자는 김동욱(1970)이다. 일본의 상업 출판물이 조선에 들어와 간행된 예는 드문 경우이며 현존본이 모두 같은 계열임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1] 이후 최환(2003), 김영선(2003), 심경호(2007)가 조선에서 복각된 중국 유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언급 및 제시하였는데, 최환(2013)은 명대에 출현했거나 명대에 유행했던 '故事' 命名 類書에 대해 연구하면서 『고사성어고』를 작문학습용 문장 집록 형태로 분류하기도 하였다.[2]

1) 김동욱, 「방각본에 대하여」, 『동방학지』 11, 연세대 국학연구원, 1970, 131면.

이 책에 대한 논의를 한층 심화시킨 것은 이윤석・성아사(2012)이다. 작자에 대한 문제 및 중국과 일본의 유사한 서적을 통해 책의 원천을 살펴보았고 특히 방각본이 성행했던 19세기 후반을 간행 시기로 상정하였다.[3)]

그러나 정작 조선본『고사성어고』에 대한 서지적인 접근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다. 나아가 현존본 조사, 간행 및 애독된 시기, 대상 독자와 성격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밝혀지지 않았다. 아울러 선행연구에서 간행 시기를 19세기 후반으로 상정하였으나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재론의 여지가 있다. 현전하는 조선본『고사성어고』는 간기가 없어 출판 주체와 간행처 및 유입 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 없고 관련 기록 또한 전무하지만, 간본에는 간행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으며 사본 가운데는『고사성어고』의 효용과 전승, 독자층, 향유 지역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들이 산재해있다. 이를 살펴본다면『고사성어고』의 실체를 소상히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민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대량 출판했던 '상업출판물'의 한 예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고사성어고』가 중국-일본-조선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애독되었는지 살펴본 뒤 조선본을 서지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재 확인되는 조선본『고사성어고』의 간본과 사본을 조사하여 간행 및 유입 시기, 유통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내용상 특징 및 효용과 대상 독자를 분석하여 조선본『고사성어고』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국내외 판본의 서지적 검토

『고사성어고』는 明 景泰 연간(1450-1456)에 간행되어『幼學須知』,『成語考』 등의 서명으로 통용되었는데, 두 책은 대동소이한 내용과 구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저자가 제각각으로 알려져 있다. 말하자면『유학수지』의 저자는 명말

2) 최환,「한국 유서의 종합적 연구(1)—중국 유서의 전입 및 유행—」,『중국어문학』41, 영남중국어문학회, 2003, 389면; 최환,「明代 '故事' 命名 類書 연구」,『동아인문학』24, 동아인문학회, 2013, 139-169면; 김영선,「한국 유서의 서지학적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3, 23면; 심경호,「한국 類書의 종류와 발달」,『민족문화연구』4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123면.

3) 이윤석・성아사,「방각본『故事成語考』의 원천」,『영주어문』23, 영주어문학회, 2012, 285-309면.

청초의 程登吉(字 允升)이고, 『성어고』의 저자는 丘濬이다.[4] 이러한 두 계통의 작자 문제는 흥미롭게도 동아시아에서 각각의 서사를 지닌 채 변화·발전하였다. 중국에서는 정등길의 『유학수지』를 증보하거나 교정한 판본이 활발하게 간행되었고, 일본에서는 구준의 『고사성어고』에 주석과 풀이를 다는 방식으로 심화되었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조선에서는 일본에서 전래된 『고사성어고』를 저본으로 하여 민간에서 상업 출판되었다. 다만 清代에 간행된 『유학수지』 계통이 국내 도서관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본도 일부 전래 및 유통되었으리라 추정된다.[5]

먼저 중국의 경우 명말 청초 정등길의 『유학수지』 계통이 널리 통용되었다. 이후 清 乾隆 연간(1736-1795)인 1760년 鄒聖脈(1692-1762)[6]이 대대적으로 증보하여 『幼學故事瓊林』을 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幼學瓊林』이라 불리는 이 책은 현대 중국에서도 어린이 교재로 각광받고 있는데, "『增廣賢文』을 읽어야 남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유학경림』을 읽어야 천하를 활보할 수 있다[讀了增廣會說話, 讀了幼學走天下]"라는 말도 있다. 이 외에도 청대에 『育正堂重訂幼學須知句解』가, 청말에 『幼學須知句解』, 『重訂幼學須知句解』, 『校正幼學須知句解』가 간행되었다. 곧 중국에서는 『유학수지』 계통이 애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성어고』는 20세기 초에나 간행되었으니 『유학수지』처럼 오랜 기간 동안 증보·간행되지는 않았다.[7]

---

4) 일본 학자 長澤規矩也의 『和刻本類書集成』(1976)에 따르면 『고사성어고』의 저자 구준은 가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이윤석·성아사, 앞의 글). 중국의 최신 연구도 정등길의 『유학수지』 계통을 母本으로, 구준의 『고사성어고』 계통을 別本으로 보고 있다(王丹, 「『幼學瓊林』祖本系統考述」, 『牡丹江大學學報』 25, 2016, 24-27면). 이러한 저자의 진위문제는 상업출판물에 종종 나타나는 특징으로 보인다. 예컨대 1739년에 조선에서 간행된 『簡式類編』은 아전 李寅錫이 명말 청초의 학자 錢謙益(1582-1664)의 『簡式類編』과 金淨의 『東人例式』을 바탕으로 편찬한 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겸익이 『간식유편』을 지었다는 말은 어느 문헌에도 나오지 않는다. 이는 곧 유명 학자의 이름을 빌려 판매 부수를 늘리려는 전략에 다름 아니다(장유승, 『쓰레기 고서들의 반란』, 글항아리, 2013, 183-194면). 따라서 조선과 일본에서만 『고사성어고』가 인기를 끈 이유는 『大學衍義補』, 『家禮儀節』 등을 저술한 구준의 학문적 명성과 유관하다고 볼 수 있다.

5) 최환, 『한·중 유서문화개관』, 영남대 출판부, 2008, 43면.

6) 추성맥은 조부 鄒周楨, 부친 鄒仁聲의 대를 이어서 출판업에 종사하였다. 과거 공부를 하지 않고 經史와 秦漢諸書를 출판하여 널리 보급하였다(동양고전해제집 『유학경림』 참조).

7) 임동석 역주, 『유학경림』 해제, 고즈윈, 2005.

다음으로 일본의 경우 구준의『고사성어고』계통으로 발전하였다. 화각본에는 권수제 다음 행에 "雲間 盧元昌 文子 補著"라는 기록이 있다. 노원창(1616-1695)은 명말 청초의 문인으로 '雲間(지금의 상해 松江縣)'은 관적이며 '文子'는 자이다.[8] 그의 생몰년으로 미루어 보아 17세기 중반 경에『고사성어고』라는 서명으로 중국에서 출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부 화각본『고사성어고』에는 "瓊山先生彙纂 幼學須知必讀成語考"라는 封面紙가 있다. 곧『유학수지』라는 서명의 책도 동시기에 유통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일본으로 유입된 뒤 1681년 일본 학자 황천수의 서문과 1682년 중도의방의 발문이 붙어 간행되었다.[9]



〈사진 1〉 와세다대 소장본 봉면지

8) 노원창의 호는 觀堂이고 만년에는 半林居士라는 자호를 썼다. 그런데 노원창이 보충하여 저술했다는 것도 작자를 가탁했을 가능성이 있다. 노원창의 저술로『杜詩闡』,『半林詩集』,『左傳分國纂略』,『唐宋八大家集選』,『明紀本末國書』,『稀餘堂留稿』,『東柯鼓离草』,『思美廬刪存詩』가 있다. 劉曉亮,「盧元昌著述考」,『杜甫研究學』127, 四川省杜甫學會·成都杜甫草堂博物館, 2016, 42-47면 참조.

9) 'kanseki 全國漢籍DB'에 따르면 총 24종의『고사성어고』가 일본 각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중 간기가 확인되는 것은 13건으로, 모두 長尾平兵衛가 간행하였고 이 중 5건은 板木屋九兵衛가 후쇄하였다. 그밖에 와세다대 소장본 5종이 확인되는데, 長尾平兵衛 2책, 板木屋九兵衛 1책, 藤野九郎兵衛 1책, 간기 미상 1책이 소장되어 있다. 5종 중 이미지 자료가 제공되는 본은 長尾平兵衛本과 板木屋九兵衛本 각각 한 종씩이다. 요컨대 일본에는 총 29종의『고사성어고』가 현전하고 있으며 長尾平兵衛의 간본이 가장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791년에는 三宅元信이 기존 『고사성어고』의 주석을 증보하여 『故事成語考集註』를 간행하였고, 1902년에는 『故事成語考註解』가 간행되었다. 20세기 초에 간행된 『精註雅俗故事續本』은 저자를 정등길이라 하였는데 근대에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학수지』와 『고사성어고』 두 계통이 혼재되어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10]

마지막으로 조선의 경우 일본에서 『고사성어고』가 전래된 이래 별도의 증보 및 교정 없이 오로지 이 한 계통만 간행되었다. 『유학수지』 계통은 따로 간행되지 않았다. 황천수의 서문과 중도의방의 발문이 삭거되지 않고 그대로 간행되었기 때문에 화각본을 저본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에서 간행된 『고사성어고』는 책을 그대로 뒤집어 새기는 일반적인 번각과는 달리, 책을 새로 베껴 쓴 뒤에 새긴 '寫刻'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화각본과 조선본의 형태 서지 상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첫째, "瓊山先生彙纂 幼學須知必讀成語考"라는 봉면지가 완전히 사라졌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幼學須知'라는 명칭으로 통용되지 않고 '故事成語' 혹은 '故事成語考'라는 약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둘째, 화각본의 특징인 傍註와 훈점이 사라지고 계선이 생겼다. 아울러 행서로 된 황천수의 서문과 중도의방의 발문이 正字로 새겨졌다. 셋째, 한 행으로 된 본문이 두 구씩 대를 맞춘 형태로 정렬되었다. 이는 조선에서 변려문을 판각할 때 쓰는 방법이자 특징이다. 또 대가 끝나는 부분에 圓點이 추가되었다. 넷째, 불필요한 두주가 제거되었다. 다섯째, 화각본은 2권 1책인 경우도 있고 2권 2책인 경우도 있지만 조선본은 1책 단권으로 간행되었다. 여섯째, 판심제가 '成語考'에서 '故事成語'로 바뀌었다.

이렇게 조선에서 번각된 『고사성어고』는 현재 간본 75종[11], 사본 76종[12]이

10) 이윤석・성아사, 앞의 글, 290-298면.

11) 간본의 소장처와 종 수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대(1), 경상국립대(2), 경북대(2), 고려대(8), 국립중앙도서관(4), 국립중앙박물관 이건희 컬렉션(2), 국학진흥원(7), 국회도서관(1), 규장각(2), 계명대(2), 단국대 죽전(2), 단국대 천안(3), 부산대(3), 사이버기록박물관(1), 성균관대(1), 숙명여대(1), 연세대(2), 영남대(4), 울산박물관(1), 이화여대(1), 장서각(7), 전남대(1), 전북대(1), 조선대(1), 충남대(1), 충북대(1), 한국근대문학관(1), 한림대(1), 현담문고(2). 아래는 경매 사이트이다. 금요경매(4), 인터넷규장각(1), 한옥션(4).

12) 사본의 소장처와 종 수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대(1), 경상국립대(2), 경남 민족문화발전

확인된다.[13] 남아있는 간본은 모두 동일한 계통이다.[14] 국중본(古032-53)을 대표로 간본의 서지사항을 살펴본다.

표제(권수제): 故事成語考 (新鐫詳解丘瓊山故事成語必讀成語考)
판사항: 木版本
판심제: 故事成語
형태사항: 1冊(35張): 四周單邊, 半郭 19×13.5 cm. 12行24字,
註雙行, 白口, 內向二葉花紋魚尾; 26.0×16.5 cm

『고사성어고』는 목판본 1책 단권(35장)으로, 표제는 '故事成語考' 혹은 '故事成語'이고 권수제는 '新鐫詳解丘瓊山故事成語必讀成語考'이다. 卷末題는 없다. 판심제는 '故事成語'이고 下魚尾 위에 張次가 순서대로 인쇄되어 있다. 어미는 上下內向 二葉花紋魚尾가 대부분인데 어미별로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광곽은 사주단변이라 표기되어 있으나 13장부터 26장까지 사주쌍변이 나타난다. 이 보판된 면은 字體도 확연히 다르다. 책은 황천수의 서문을 시작으로 34항의 목록[15], 1902행의 본문, 중도의방의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자수는 12행

연구소(1), 경북대(7), 고려대(2), 국립중앙도서관(4), 국립광주박물관(1), 국학진흥원(18), 규장각(1), 계명대(4), 나라얼연구소(1), 단국대 죽전(4), 대전시립박물관(1), 동아대(1), 부산대(3), 서강대(1), 숙명여대(1), 소수박물관(2), 안동대(1), 연세대(1), 영남대(5), 용인대(1), 용화사 묵담유물관(1), 원광대(1), 장서각(3), 전남 송광사 박물관(2), 제주대(1),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1), 한밭도서관(1), 현담문고(1). 아래는 경매 사이트이다. 한옥션(3).

13) 간본과 사본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책은 다음과 같다. 가회민화박물관(2), 대전시립박물관(1), 서울대박물관(1), 한국족보박물관(1). 개인소장의 경우는 따로 표기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남아있는 간본은 100여 종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14) 소장처에 따라 형태 사항이 상이한 경우가 몇몇 있었으나 실물을 확인한 결과 모두 동일한 계통임을 확인하였다. 먼저 어미의 경우 기록자에 따라서 판심의 화문을 모두 합쳐서 칭하는 경우가 있다. 충북대 소장본(718-ㄱ355)과 영남대 소장본(古032 구준 Y0938130, 古032 구준ㅅ Y0836617)은 어미에 대해 上下內向 四瓣花紋魚尾라고 하였는데, 실사 결과 모두 동일한 판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는 판사항이 木活字本인 경우이다. 경상국립대 소장본 2종(古(저침곡)A10-구14ㅅ, 古(하남)A10-구14ㅅv.單)과 국학진흥원 소장 진성이씨 향산고택 기증본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는 앞쪽 면이 글자 간의 엇물림이 없고 어미가 계선과 떨어져 있어 활자본이라 오인한 듯하다. 이 책의 광곽을 보면 목판본임이 확실하다. 셋째는 광곽이 사주쌍변인 경우이다. 이는 보판된 면(사주쌍변)과 보판되지 않은 면(사주단변)이 혼재하여 사주쌍변이라 표기한 것이다.

15) 전체 목차는 다음과 같다. 1.天文, 2.地輿, 3.歲時, 4.朝廷, 5.文臣, 6.武職, 7.祖孫父子, 8.兄弟, 9.夫婦, 10.叔侄, 11.師生, 12.朋友賓主, 13.婚姻, 14.女子, 15.外戚, 16.老壽幼誕, 17.身體, 18.宮室, 19.器用,

24자이며 계선 안에 두 구씩 대를 맞춰 정렬되어 있다.

조선본 『고사성어고』에서 특기할 사실은 보판된 13장에서 26장까지의 형태를 통해 한 차례 重刊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래는 국중 소장본(고032 172)의 보판 시작 면과 끝 면의 사진이다.



〈사진 2〉 국중 소장본(고032 172) 보판 시작 면(왼쪽 면)



〈사진 3〉 국중 소장본(고032 172) 보판 끝 면(오른쪽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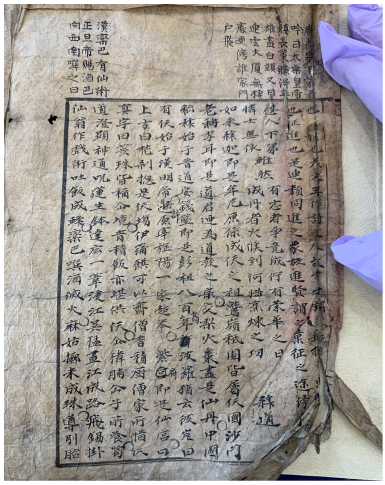
확인한바 모든 간본의 13-26장은 보판되었다. 책 전체의 광곽이 사주단변인

20.花木, 21.鳥獸, 22.衣服, 23. 飮食, 24.珍寶, 25.制作, 26.文事, 27.科第, 28.釋道, 29.技藝, 30.訟獄, 31.貧富, 32.人事, 33.疾病死喪, 34.鬼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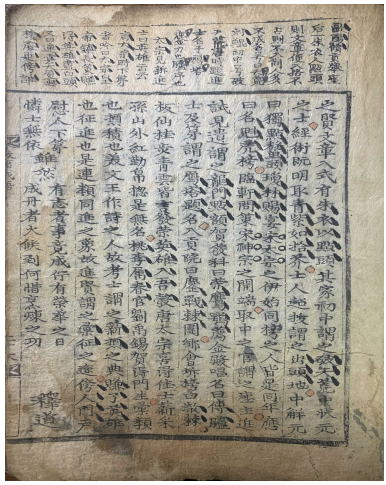
경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아 초간본인지 중간본인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첫 간행부터 각기 다른 광곽을 섞어 쓰진 않기 때문이다. 字體를 보더라도 보판된 면은 보판되지 않은 면보다 글자가 큼직큼직하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중간 여부를 추정할 수 있다.

복각의 흔적은 고려대 만송문고 소장본(만송 E1 A4-2461381577)[16]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책의 앞면과 뒷면의 표지에 중간을 위해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접지가 있는데 앞면에는 보판의 마지막 면인 26b면(釋道)이, 뒷면에는 25b-26a면(科第)이 배접되어 있다. 그러나 이 면들은 두 행씩 밀려서 필사되었고 군데군데 글자를 수정한 흔적이 있다. 이러한 誤寫 때문에 복각에 활용할 수 없어 배접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바로 배접지의 필체인데 보판되지 않은 면의 필체와 유사하다. 곧 전체가 보판되지 않은 면의 字體를 지닌 책이 존재하였고, 이를 저본으로 삼아 복각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실물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초간본이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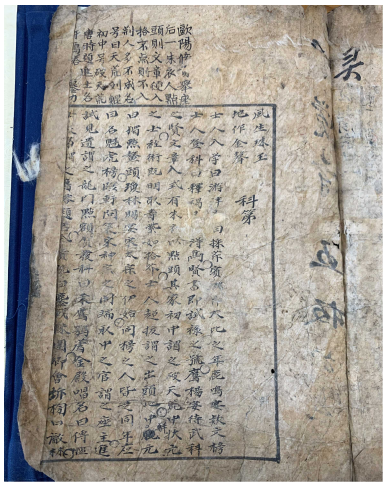


〈사진 4〉 만송문고 소장본 첫 면 배접지



〈사진 5〉 만송문고 소장본 해당 면

16) 장서인으로 "寶"와 "宣城金儒熏印"이 찍혀 있다. 김유훈은 미상이다. 책의 상태가 좋지 않아 배접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6〉 만송문고 소장본 뒷 면 배접지



〈사진 7〉 만송문고 소장본 해당 면

3. 조선본의 간행 시기와 유통

화각본 『고사성어고』는 1682년에 간행되었으나 조선에 유입되어 번각될 때에는 刊記를 따로 새기지 않아 출판 시기와 장소 및 주체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심지어 관련 기록이 전무하여 조선으로의 전래 및 유입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 그런데 일부 간본과 사본에는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따라서 조선 간본의 묵서와 장서인, 그리고 사본의 序跋文이나 後識를 통해 조선으로의 전래 시기 및 유통 양상을 대략적이나마 추적해보고자 한다.

사본의 경우 대부분 19세기 중후반에서 20세기 초에 필사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중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필사된 책들은 간행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국중)에 소장된 필사본 1종(청구기호 古031-58)은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선 간본을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17] 책의 맨 끝 면에 "을묘년 9월 모일에 별도로 베낀다[乙卯九月日別寫]"라는 묵서가 있는데 을묘년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는 본문의

17) 조선 간본을 필사한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조선 간본의 특징이 그대로 전사되었기 때문이다. 목차에서 '釋道'와 '鬼神'이 분리된 것, 두 구씩 대를 맞춘 본문이 이에 해당한다.

뒤에서 9면 분량의 "古今史蹟" 항목에 담겨 있다. 여기에는 五帝・三代를 비롯하여 五霸, 孔門十哲, 宋代 理學家, 역대 충신, 明・淸의 연호, 조선 역대 임금의 즉위 연도, 재위 기간, 이름, 字가 기록되어 있는데 조선의 역대 임금이 景宗(재위 1720-1724)에서 마무리된다. 곧 영조 연간(1724-1776)에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영조 연간의 을묘년은 1735년이므로 이 무렵에 이미 조선에서 간행되었고, 이때 유통된 책이 초간본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한다.

다음으로 소수박물관에 소장된 2종의 필사본은 모두 경북 영주에서 세거한 달성서씨 知樞公派(順興派) 집안에서 필사하였다. 그중 한 종에는 "東沙軒藏"과 "甲申年 11월에 改粧했다"라는 묵서가 있다. 東沙는 徐在懋(1816-1897)[18]의 호이므로 갑신년은 1884년임을 알 수 있다. 다른 한 종에는 동사 서재무의 종조부인 徐幹發(1774-1833)[19]의 後識와 『고사성어고』에 대해 읊은 시 2수가 붙어 있다. 1816년에 쓴 이 후지는 조선본 『고사성어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단락을 나누어 전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姪孫 松年이 『고사성어고』 1부의 책을 필사하였으니, 書齋에서 살펴보기에 편리해서이다. 아, 이 책은 명 유학자 丘瓊山이 지은 것인데 일본인 荒川秀가 서문을 썼으니, 아, 천하의 책은 같은 문자이다. 중국으로부터 푸른 바다 수천백 리를 건너 일본인이 서문을 쓰고 또 푸른 바다 수천백 리를 건너 우리나라에서 간행되었으니, 책이 천하에 간행되지 않은 곳이 없어 공공으로 두루 미친 것이 바로 이와 같다.[20]

첫 단락에서는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필사했는지 명기되어 있다. 다만

18) 徐在懋(1816-1897)의 자는 元美이다. 부친은 徐成烈(1783-1838)이고 조부는 徐鉉東(1767-1802)이다. 1841년 문과에 급제하여 大東察訪・司諫院司諫 등을 역임하였다.

19) 徐幹發(1774-1833)의 자는 幼祥, 호는 南厓이고 영주시 단산면 沙川(새내)에 살았다. 부친은 徐福胤(1749-1773)이고 생부는 徐宗胤(1740-1777)이다. 서간동은 서간발의 형이고, 서성열은 조카이다. 立齋 鄭宗魯(1738-1816)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저서로는 『南厓遺稿』 14권 7책이 있다. 이상 정상홍, 「蓬海帖 解題」, 『國譯 蓬海帖』, 동양대 한국선비연구원, 2017 참조.

20) 徐幹發, 「後識」. "姪孫松年, 繕寫故事成語一部書, 蓋便於文房考覽也. 噫, 玆書明儒丘瓊山卽所作, 而日本人荒川秀序之者也. 噫, 天下之書, 同文也. 自中國, 越滄溟數千百里而日本人序之, 又越滄溟數千百里而見行於吾東. 書之於天下, 無所不行, 而公共周徧, 迺如是也."

松年이라는 이름은 족보에도 보이지 않는데 아마도 서재무의 兒名으로 짐작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서간발의 同文의식이다. 구경산의 저작이 일본에서 간행되었고, 일본인의 서문과 발문이 붙은 채로 조선에서 간행된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 곧 한중일 동아시아에서 공통으로 간행된 이 책을 통해 同文의식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조선으로 전래되어 간행된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처럼 특기한 것으로 보인다.

> 나) 게다가 스스로 삼가 느낀 점이 있다. 할아버지께서 일찍이 이 책을 손수 베끼시고 아버지께서 「감회시」 여러 구를 편말에 미루어 써서 상자에 간직해 두었는데 불행히도 화재를 겪어 지금은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으니, 아버지를 여읜 뒤로 모진 목숨은 아득히 서업이 끊어져 더욱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네가 重年의 후학으로 선조의 뜻과 사업을 미루어 서술할 줄 알아서 책을 만드는 데 이르러 이처럼 어루만지게 되니, 혹 문득 홀연히 手澤이 다시 앞에 있는 듯하다.[21]

선대께서 손수 傳寫하고 감회시를 부기한 구장본이 화마에 의해 잿더미가 되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조부와 부친의 자취를 돌아볼 수 없을까 염려했지만 송년이 繼志述事의 정신으로 책을 만든 일에 대해 기특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책이 언제 읽혔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간발의 조부는 徐昌伯(1727-1772)이고 부친은 徐福胤(1749-1773)이다.[22] 두 사람의 몰년이 각각 1772년과 1773년이거니와, 발문에 따르면 서창백의 전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 서복윤의 감회시가 부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불에 탄 구장본의 필사 연도는 적어도 18세기 중반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다) 송년 네가 지난번 편지에서, 문장을 통해 道를 구하여 천지가 위대한 까닭과

---

21) 徐幹發, 「後識」. "抑有私竊感焉. 王父嘗手寫是書, 而先君子追書感懷詩數句語於編末, 弆在巾衍, 不幸厄於火, 今不得以復見, 則孤露頑喘, 墜緖茫茫, 益無以爲懷, 而幸汝以重年未進, 能知追述先人志事, 以至成書, 如是摩挲, 或便怳若手澤之復在前也."

22) 서간발은 서창백과 서복윤 사후 1774년에 양자로 들었기 때문에 王父와 先君子가 서창백과 서복윤을 가리키는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다만 생부 徐宗胤(1740-1777)과 생조부 徐昌傑(1720-1750)이 서창백・서복윤과 동시대에 살았으므로 『고사성어고』를 전사한 연대가 18세기 중반임은 틀림없다.

> 귀신이 그윽한 까닭과 인륜이 중요한 까닭을 알았고, 花木・鳥獸의 많음과 衣服・飮食의 쓰임에 이르기까지 이치를 궁구하여 지극히 하며 제 몸에 돌이켜 성실히 하였으니, 바야흐로 이 책을 읽고 선조의 뜻과 일에 진실로 그 위대한 것과 원대한 것을 미루어 서술하였다고 이를 만하다. 내가 이에 다시 여러 번 읽고 거듭 면려하노라. 丙子年(1816) 6월 1일 幼祥이 쓰다.23)

마지막 단락은 서간발이 인식한『고사성어고』의 효용이 드러나는데, 이와 관련한 부분은 뒤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책이 읽힌 시기에 초점을 맞춰 보면 서간발이 후지를 쓴 연도는 1816년이지만, 글의 내용을 통해 18세기 중반에 이미 필사된 구장본이 있었음을 명시했으므로 18세기 중반에 이미『고사성어고』의 간본이 유통 및 유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선본『고사성어고』의 출판 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간본이 있다. 바로 국학진흥원에 소장된 不求堂 종택본이다.24) 이 간본의 본문은 뒷면이 모두 時憲曆으로, 각 장의 연도를 파악하면 간행의 상한 연도를 알 수 있다. 대부분 면의 판심제가 닳아 있지만 일부 甲申年과 丁亥年이라는 판심제에 각각 三月大 建戊辰, 十月大 建癸亥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에서 제공하는 시헌력의 이미지와 대조해본 결과, 갑신년은 1764년, 정해년은 1767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구당 종택에서 소장하고 있던『고사성어고』는 적어도 1770년대 이후에 간행된 간본임이 분명하다.

한편 현재 확인되는 여러 사본의 묵서 및 장서인, 追記된 글들로 미루어 볼 때 이 책은 주로 영남 지방에서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북 부안의 학자 桐塢 李萬祿(1776-1847)의 서문이 부기된 국중 소장 필사본(古032-138)을 제외하고는 현재 남아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록들이 영남과 관련되어 있다.

---

23) 서간발,「後識」. "松年汝於前書, 能因文以求道, 知天地之所以大, 鬼神之所以幽, 人倫之所以重, 以至於花木鳥獸之多, 衣服飮食之用, 窮理而致之, 反身而誠之, 則方可謂讀是書, 而於先人志事, 實能追述其大者遠者已矣. 余於是復爲之三復, 申勉焉. 丙子(1816)六月元日, 幼祥書."

24) 不求堂은 金洼(1606-1681)의 호로, 본관은 의성, 자는 汝定이다. 1633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639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벼슬은 김천・무장・연안・양산의 현감과 충청도의 都事를 역임하는 등 외직을 주로 지냈다. 저서로는『不求堂先生文集』이 있다. 불구당 종택 소장본『고사성어고』는 현재 국학진흥원 소장자료에서 이미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미지로는 본문 뒷면의 일부(9, 12, 13, 16, 17면)만 시헌력인 것으로 보이지만, 원본을 실사한 결과 모든 본문의 뒷면이 시헌력임을 확인하였다.

간본의 경우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본(C15-0118 v.1)이 대표적이다. 앞면에 "冊主 朝鮮 慶尙道 寧海 元邱 大興白氏 星湖宅", 뒷면에 "冊主 元皐 重九峰 大興白氏 星湖宅"이라는 묵서가 있다. 곧 경북 영해 원구리에 세거하는 대흥백씨 집안에서 소장한 책이다. 아울러 국학진흥원 소장 불구당 종택본은 안동에 살았던 의성김씨 집안에서 소장한 것으로, 책의 본문 뒷면에 壬辰年 12월에 필사한 「茅庵公子孫錄序」가 있다. 茅庵은 不求堂 金迋(1606-1681)의 후손 金鵬壽(1796-1862)의 호이다. 곧 「모암공자손록서」는 김붕수 사후에 자손들이 『子孫錄』을 만들고 나서 임진년(1892)에 쓴 서문이므로 안동 의성김씨 집안에 구장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본의 경우 영남과 관련한 흔적이 더욱 뚜렷하다. 앞서 살펴보았던 영주에 세거한 대구서씨 지추공파의 사본 2종을 비롯하여 "安東 검재宗人 名九燮"이라는 묵서와 안동 葛麻谷에 안장된 아무개의 挽軸이 부기된 계명대 소장본((고) 411.34 고사성어 A146208), 大山 李象靖의 편지가 부기된 현담문고 소장본, 郭鍾錫의 『俛宇集』을 요약하여 부기한 부산대 소장본(OMO3-10-51), '肯堂' 장서인이 찍힌 국학진흥원 소장 향산고택본, "主 鳳城 琴"이라는 묵서와 槐潭 裵相說의 「扇銘」이 필사된 국학진흥원 소장 봉화금씨 매헌종택본, 19세기 후반 안동의 학자 權大鬲(1853-1932)의 장서인 '石湖 安東 權大鬲舜翊'이 찍힌 개인소장본 등 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대부분이 영남과 관련되어 있다.

사본 중에 별도의 계통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용화사 묵담유물관 소장본(儒-1), 단국대 소장본(473.4-고803가), 남권희 교수 장서인이 찍힌 경북대 소장본(古北 808.88 구14ㅅ), 규장각 소장본(奎中2314)이 그러하다. 이들 사본에는 공통적으로 권수제 뒤에 "해동의 무명자가 잘못을 분별하고 주를 보충한다[海東 無名子, 辨訛補註]"는 기록이 있다. 무명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중국・일본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고사성어고』를 한층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조선본의 내용상 특징[25]

조선 간본『고사성어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민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대량 생산한 상업출판물이라는 점이다. 간기와 출판 주체가 확인되진 않지만 과거용이라는 성격을 비롯하여 작은 책 크기, 단권, 조잡한 어미 등 방각본의 내용적・서지적 특징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26]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誤寫에 의한 誤刻이다. 와세다대 소장 화각본과 조선 간본을 비교한 결과 조선 간본에는 총 101건의 오류가 확인된다.[27] 대부분이 유사한 字音과 字形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중에는 내용 파악에 지장을 주는 오각도 다수 발견된다. 중앙의 경우 책을 교정할 때 誤字 1자마다 30대의 笞를 친다는 법령이 있었고,[28] 지방의 경우 집안의 문집을 간행할 때 몇 차례 교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고사성어고』의 조악한 상태는 통상적인 출판물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오각의 사례를 표로 제시한다.

〈표 1〉 조선본『고사성어고』내 오사에 의한 오각

항목	본문의 오류	정정	비고
文臣	憲臺廉**臺**, 提刑按察之號.	廉憲	廉訪使의 별칭
文臣	郡丞二侯, **知州**譽美.	同知	知州는 1급 지방 행정관
文臣	項中山, 潔已**餘**馬投錢.	飮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文臣	李善感, 直言不諱, 競稱鳴鳳**在**陽.	朝	『詩經』「大雅・卷阿」
兄弟	毋傷手足之**情**.	雅	단순 오류
師生	稱得祕授, 日衣鉢**直**傳.	眞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朋友賓主	己所共**爭**, 謂之同袍.	事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婚姻	藍田種**菜**, 雍伯之緣.	玉	楊雍伯 고사

25) 전술하였듯이『고사성어고』는 사실상『유학수지』와 같은 책이다. 이를 증보한『유학경림』은 현재 한글 번역본이 나와 있어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고, 단순히 고사를 분류별로 나열하였기 때문에 상세한 분석을 요하지 않는다. 각 책별 목차 비교 또한 이윤석・성아사(2012)의 앞의 글에 상세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본문의 형식을 몇 차례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26) 옥영정,「비소설 한문방각본 간행에 대한 서지적 고찰」,『열상고전연구』31, 열상고전연구회, 2010, 224-227면.

27) 이는 실물 확인이 가능한 모든 조선 간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28) 강명관,『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 천년의 상상, 2014, 248-259면.

女子	**西**施效顰而可厭.	東	동시효빈 고사
女子	生菩薩, **九**子母, 鳩盤荼.	鬼	유사한 자음으로 인한 오류
外戚	郡主縣**主**, 皆宗女之謂.	君	단순 오류
外戚	共敍舊**婚**, 日原有瓜葛之親.	姻	단순 오류
身體	百體, **非**血肉之体	皆, 軀	단순 오류
身體	**眉**日玉樓.	肩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身體	剜肉醫瘡, **擁**濟目前之急.	權	權은 '임시로'라는 의미
身體	邀親友, 日敢**板**玉趾.	攀, 趾	유사한 자음으로 인한 오류
身體	可鄙者, 大言不**慚**.	慚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身體	睡日黑**憩**	甜	蘇軾,「發廣州」"黑甜"
宮室	**大夫**署, 學事所居.	木天	木天署는 한림원의 별칭
宮室	美**臭**美**爛**, 禮稱屋宇之高華.	奐, 輪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器用	小舟名**舸艦**	舸艦	舸艦은 큰 배의 별칭
器用	**撥**襍, 是農夫之雨具.	潑	潑襍은 도롱이를 뜻함
器用	夜可擊, 朝可炊, 軍中**刀**斗.	刁	刁斗는 구리로 만든 솥
器用	楚弓楚得, 楚王之見**甚**大.	未	楚 共王 고사
器用	迎刃**而**解, 甚言事之易爲.	之	단순 오류
花木	惟**天**惟喬, 謂草木之茂.	夭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花木	**楠**梗, 勝大任之良木.	梗楠	단순 오류
花木	薰蕕異**器**, 有賢否有別.	氣	유사한 자음으로 인한 오류
花木	老人聚少婦, 日枯楊生**梯**.	稊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花木	去**狼**莠, 正以植嘉禾.	稂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花木	沃枝葉, 不**知**培根本.	如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鳥獸	**楚**王, 式怒蛙, 以昆蟲之**敗**死.	越, 敢	越王 句踐 고사
鳥獸	丙吉, **聞**牛喘, 恐陰陽之失時.	問	漢 丙吉 고사
鳥獸	九尾狐, 譏陳彭言素性諂而又**妍**.	年, 奸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鳥獸	叱石成羊, 黃初**起**之得仙.	平	단순 오류
鳥獸	棄人甚易, 日**狐**雛腐鼠.	孤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鳥獸	文名共仰, 日起鳳騰**蛟**.	龍	내용 차이는 없음
鳥獸	白足之蟲, 死而仆僵, 以其持之者衆.	不	유사한 자음으로 인한 오류
衣服	錦帳**四**十里, 富羨石崇.	五	단순 오류
衣服	公孫弘, **知**儉, 布衣十年.	甚	단순 오류
衣服	綬帶輕裘, 羊叔子, 乃**斯世文王**.	斯文主將	羊祜 고사

飮食	甘脆**肌醾**, 名曰腐腸之藥.	肥膿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飮食	御食曰珍**餚**	饈	단순 오류
飮食	龍團雀舌, 盡是香**名**.	茗	龍團・雀舌은 차의 이름
飮食	**美**酒自勞, 田家之樂.	羔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飮食	食不敬, 曰**羞**來食.	嗟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飮食	**求**獲同食, 日向隅.	未	『說苑』
飮食	**靑芻白飯**, 待僕馬之厚.	白飯靑芻	순서 바뀜
珍寶	宋人, 以燕石爲玉, 什襲**緹**巾之中.	緖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珍寶	相如勇忠, 能使秦**庭**歸璧.	廷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制作	皆古聖前**武**也.	民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文事	書經 (…) 故曰**商**書	尙	유사한 자음으로 인한 오류
文事	應試無文**字**, 謂之曳白 **白**書成綉梓, 謂之殺靑	字, 白은 誤入	"曳白"의 "白"이 뒤에 한 번 더 새겨짐
文事	記**文**之學, 自愧學膚.	問	『禮記』「學記」
文事	**鏡**尙佳章, 日洛陽紙貴.	競	유사한 자음으로 인한 오류
文事	趙匡胤, 代**泣**于後周, 陶穀出詔.	位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文事	李守素, 通姓氏之學, **世南**名爲人物誌.	敬宗	이는 許敬宗의 말이고 "世南"은 다음 행에 나옴.
文事	涵養**絶**粹, 程明道如良玉精金.	純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科第	賢書, 乃試**祿**之號.	錄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科第	鷹**揚**宴, 待武科之士.	揚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科第	薪採也, 樵積也, 美文王**作詩之人** (…)	作人之詩	단순 오류
釋道	**遜許**原宰旌陽, 一家招擧.	許遜	단순 인명 오류
釋道	**不生不滅**, 釋氏惟明心見性.	不滅不生	순서 바뀜
釋道	張虛靖煉丹旣成, 能令龍虎幷**服**, 鷄犬俱**伏**.	伏, 昇	단순 오류
技藝	推命之人, 卽星**使**.	士	유사한 자음으로 인한 오류
訟獄	狴犴, 猛**犬**而能守.	大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訟獄	鄕**井**之繫有岸.	亭	『詩經』「小雅・小宛」
訟獄	無辜**牢**連, 謂之池魚受害.	牽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貧富	**三**月賣新絲	二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貧富	庶幾遇荒**年**有備	誤入	단순 오류
人事	小**學**莫善于應對.	子	의미 차이가 없는 경우
人事	大春元, 大殿選, 大會狀, 擧人之稱不**一**.	等	의미 차이가 없는 경우
人事	大掾**吏**, 推美吏員.	史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人事	**土**人入學, 曰雲程發軔.	賀	대가 되는 구절 "賀人新冠, 曰元服加榮"과 호응하려면 "賀"의 오각으로 보아야 함
人事	演戲**夫**, 謂之俳優.	文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人事	望人寄信, 曰**卑**賜玉音.	早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人事	望移玉趾, 是**挽**人親行.	浼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人事	曰倥傯, 曰旁**牛**, 皆言人事之紛紜.	午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人事	人失信, 曰**喪**約, 又曰食言.	爽	유사한 자음으로 인한 오류
人事	手**足**共作, 曰拮据.	口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人事	**象欲**難犯, 專欲難成, 此子産之諷**孔子**.	衆怒, 子孔	『左傳』 襄公 10년
人事	座上有江南, **客**言須槿.	語	단순 오류
人事	五經掃地, 祝欽明自**焚**斯文.	褻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人事	**上强下弱**, 曰尾大不掉.	下强上弱	『좌전』 昭公 11년
人事	蕞爾**夭**麽, 言其甚小.	幺	유사한 자음으로 인한 오류
人事	假忠厚者, 謂之鄉**厚**.	愿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人事	李義**甫**, 陰柔害物, 人謂之笑裏藏刀.	府	유사한 자음으로 인한 오류
疾病死喪	將屬纊, 將易簀, 皆言人之**之**將死. 作古人, 等鬼籙, 皆言人之**之**已亡.	誤入	단순 오류
疾病死喪	死者之器, 曰**神明**待以神明之道.	明器	단순 오류
疾病死喪	墓誌創于傅**變**.	奕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傅奕은 인명
鬼神	搜神記, 撰于晉之**于**寶.	干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鬼神	土穀之神__社稷. 乾旱之鬼__旱魃.	曰이 빠짐	단순 오류
鬼神	神荼鬱**壘**, 啖鬼之神.	壘	유사한 자형으로 인한 오류

이처럼 내용 파악에 지장을 주는 오각은 간행할 때의 저본 문제라고 보기 어려울 듯하다. 이 밖에 화각본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1782년 『故事成語考集註』, 1902년 『故事成語考註解』 등의 해설서가 지속적으로 간행되어 『고사성어고』의 오류가 일부 시정된 반면,[29] 조선에서는

29) 화각본 『고사성어고』 器用條에 "楚弓楚得, 楚王之見**甚**大."라고 되어 있다. 이를 조선에서도 똑같이 복각했다. 그러나 '甚'은 '末'의 오각이다. 1791년 간행된 화각본 『고사성어고집주』에서는 '末'로 바로잡았다. 또 화각본 『고사성어고』 鳥獸條에 "九尾狐, 譏陳彭**言**素性諂而又**奸**."이라 되어 있다. 이를 조선에서 그대로 복각했는데 '奸'을 '姘'으로 잘못 새기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陳彭年이 고사의 해당 인물이므로 '言'은 '年'의 오각이다. 1791년 간행된 화각본 『고사성어고집주』에서 '年'으로 바로잡았다.

단 한 차례만 간행되었으므로 이러한 오류가 정정되지 않은 채 널리 유통되었던 것이다. 이는 민간 출판의 한계와 단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그럼에도『고사성어고』가 인기를 끌었던 것은 수많은 고사와 명물을 총망라하여 분류별로 제시한 유서이기 때문이다. 초학자의 문장 공부를 위한 참고서 및 공구서로서 고사를 보다 수월하고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선 후기에는『白眉故事』,『兒戲原覽』등 간결하고 압축된 내용의 학습용 유서가 다수 간행 및 유행하였는데『고사성어고』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업 출판용 유서'는 바로 과거 공부와 깊은 연관을 지니는데 고려대 만송문고 소장본(만송 E1 A42-461381578)의 뒷면에 "이 책에 실린 내용이 매우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과거 공부에 도움이 되기에는 충분하다.[此冊所載, 雖不甚多, 亦足於科業有輔]"라는 묵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고사성어고』는 전고의 활용에만 효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고사를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데에서 나아가, 고사마다 두 구씩 대를 맞춰 기초 작문의 방식을 학습할 수 있다는 데에 특장이 있다. '對偶'는 詩賦, 古文, 駢儷文을 가리지 않고 쓰이는 한문의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진사시를 염두에 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인·학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길러내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체재로 본문을 구성한 초학자용 유서는『고사성어고』가 유일하다. 아래에서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본다.

天文 - 日月五星, 謂之七政, 天地與人, 謂之三才.
地與 - 以蠡測海, 喩人之見小, 精衛啣石, 比人之徒勞.
武職 - 總之, 君子身, 可小可大, 丈夫志, 能屈能伸.
叔姪 - 曰諸父, 曰亞父, 皆伯叔之輩, 曰猶子, 曰比兒, 俱侄兒之稱.
夫婦 - 要知, 身修而後家齊, 夫義自然婦順.
女子 - 侃母, 截髮而迎賓, 村溫, 殺鷄而謝客, 此女子之賢者.
鳥獸 - 小人不知君子之心, 曰燕雀安知鴻鵠志, 君子不受小人之侮, 曰虎豹豈受犬羊欺.
珍寶 - 魚目豈可混珠, 碔砆焉能亂玉?
貧富 - 甦涸鮒, 乃濟人之急, 呼庚癸, 是乞人之粮.
技藝 - 醫士, 業歧軒之術, 稱曰國手, 地師, 習靑鳥之書, 號曰堪輿.

『고사성어고』의 본문은 모두 34개의 목차와 1902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A는 B이다'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A曰B, C曰D', 'A喩B, C比D' 'A謂之B, C謂之D', 'A是B, C乃D', 'A係B, C皆D'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나아가 문장을 끝맺을 때는 '至若', '要知', '此皆', '總之', '然而' 등이 쓰이기도 한다. 이처럼 『고사성어고』가 문장 공부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은 일본 학자 荒川秀의 서문에서도 강조하였다.

> 무릇 學은 유가의 道를 몸으로 익히는 것이고, 文은 또한 유가의 道를 실어 남에게 전하여 영원한 데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道를 배우면서 文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마음으로만 알고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으니, 文이 道에 대하여 또한 관계됨이 크지 않겠는가? (…) 文이 道에 있어서는 관계된 바가 이미 큰데, 이 책이 文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에게 공이 있으면 이 책이 道에 있어서도 또한 작은 보탬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30]

여느 초학 교재의 서문과는 그 깊이가 사뭇 다르다. 황천수는 文의 중요성을 강조하되 文과 道를 相須的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서문을 썼다. 곧 因文求道의 효용을 말하고 있다. 조선에서의 대표적인 초학 교재로는 주자의 『童蒙須知』와 율곡의 『擊蒙要訣』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주자는 『동몽수지』의 서문에서 아동들이 灑掃應對・事親敬長의 덕목을 함양하기를 바랐고, 율곡은 『격몽요결』의 서문에서 五倫의 덕목과 이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초학 교재의 서문에서 文을 강조한 점은 상당히 특기할 만한 지점이라 하겠다.[31]

여기서 '초학자'의 나이, 곧 대상 독자를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간발의 발문이 붙어 있는 소수박물관 소장본에는 발문 외에도 龜川 徐成烈(1783-?)의 시와 서간발의 화운시가 남아 있다. 『고사성어고』를 소재로 읊은

30) 『고사성어고』 荒川秀 序. "夫學者, 所以得斯道於身, 而文者, 亦所以載斯道而傳之於人, 達之於悠久者也. 故學道而不能爲文, 猶識于心而口不能言焉. 文之於道也, 不亦關係之大乎? (…) 顧夫文之於道, 所關已大, 而此書之於文, 亦有功於童蒙, 則此書之於道也, 亦不可謂之無小補焉."

31) 황천수가 말한 道는 유가의 의리도덕을 가리킨다. 그러나 본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유가의 의리도덕, 즉 經書의 전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 않다. '釋道'와 같은 조목이 있는 것만 봐도 그러하다. 따라서 이 책의 서문은 황천수의 문학관 내지 文道論을 파악하는 데에 용이한 자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유일한 시라는 점에 주목할 만한데, 여기서는 대상 독자의 나이를 명시한 서성열의 原韻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32]

「原韻」

初學有成語	초학자에겐『고사성어고』가 있으니
瓊翁爲擊蒙	구경산 옹이 아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라네
蒐羅不滲漏	찾아 모은 것이 허술하지 않고
援据摠淹通	근거 삼은 것이 모두 정통하였네
錯落珠璣上	구슬 위에 어지러이 뒤얽힌 듯하고
昭森星宿中	星宿 가운데 밝게 빛나는 듯하네
勉旃蛾子術	힘쓸지어다, 개미가 수시로 흙을 나르듯
作聖自成童	성인이 되는 일은 成童의 나이부터라네

서성열은『고사성어고』가 成語를 모은 것이 정밀하고 근거로 삼은 것이 정통한 데다 책 속에 담긴 내용도 자못 빼어남을 예찬하고 있다. 이어서 이 책을 필사한 아들 서재무에게 이 책을 열독할 것과 전반적인 학문 행위에 꾸준히 힘쓸 것을 권면하며 시를 마무리하였다. 여기서 책을 傳寫한 당시 서재무가 成童의 나이임을 알 수 있고, 또 시의 뒤에 "이때 아이는 13세였다.[時兒年十三]"라는 묵서가 있으므로 곧 이 책의 대상 독자가 成童의 나이, 곧 13세에서 15세임을 알 수 있다.

대상 독자와 관련해서는 국중 소장 필사본(古032-138)에 부기된 별도의 서문에도 드러난다. 서문을 쓴 사람은 李萬祿(1776-1847)으로, 桐塢는 그의 호이다. 본관은 古阜, 자는 大受이고 전북 부안에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처사로 생을

32) 서성열의 시에 대한 서간발의 화운시는 다음과 같다.「조카의 시에 차운하여 송년에게 주다[次姪兒韻, 贈松年]」"조부께서 일찍이 손수 베끼셨는데, 아, 나는 아득히 고루하고 몽매하였네. 우리의 도를 구경산이 중히 여기니, 같은 문자 큰 바다에 널리 퍼졌네. 삼대가 지난 뒤 잿더미로 변했지만, 청전의 가업은 한 집안에 있다네. 백발로 옛일을 추억할 수 있는 것은 조카에게 이 아이가 있어서라네.[大爺曾手寫, 咨我眇孤蒙. 斯道瓊山重, 同文大海通. 劫灰三世後, 氈業一家中. 鬢髮能追述, 阿咸有是童.] 서간발의 차운시는 앞서 살펴보았던 후지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일찍이 조부께서『고사성어고』를 한 벌 필사해둔 사실, 한·중·일에서 공통적으로 간행된 데에 대한 同文의식, 구장본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지만 손조카 서재무가 새로 필사한 일을 차례로 서술하고 있다. 옛 일을 회고하며 서재무가 선대의 유업을 계승하였음을 치켜세우고 있다.

마쳤으며 蘆沙 奇正鎭(1798-1879)이 쓴 묘표가 『노사집』에 전한다. 이만록의 서문은 호남 지역에서도 『고사성어고』가 읽혔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다.

> 무릇 배우는 자가 먹을 갈고 붓을 잡을 때는 마음을 온전히 하고 힘을 다하지 않지만, 긴요하여 저술에 보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어릴 적에 일찍이 『고사성어고』가 볼 만 하다는 것을 듣고도 얻어 보지 못했는데, 경오년(1810)에 熙叔이 책 한 권을 베끼니 전날에 곧 보고자 했던 『고사성어고』의 초록이었다. 대개 말을 모은 것이 정밀하고 종류별로 취한 것이 넓어서 완상할 만하였는데, 명 구경산이 크게 힘써 후세의 童蒙과 배우기를 원하는 선비에게 효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지금 熙叔은 나이가 15세에 지나지 않는데 이러한 문자에 부지런히 힘쓰니 그대의 성실함이 아름다울 만하다.** 필적이 정밀하지 못하지만 거칠지 않으니 진실로 연마하여 훌륭한 일에 점차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후세에 즐겨 완상하는 자는 소홀히 하거나 멀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 辛未年(1811) 3월에 桐塢 쓰다.[33]

1811년, 이만록이 36세에 쓴 이 서문에는 크게 세 가지 정보가 담겨 있다. 첫째는 이만록이 어려서부터 『고사성어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만록의 생년(1776)으로 미루어 18세기 후반에 이 책이 간행 및 유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는 책의 효용이다. 초학자를 대상으로 성어를 가려 뽑아 작문과 기초 지식을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책이 만들어졌음을 인지하고 있다. 셋째는 대상 독자이다. 熙叔이라는 이만록의 아들뻘 인물이 15세에 이 책을 읽고 한 권을 필사해둔 것이다. 이는 위에서 살펴보았던 서성열의 시에 언급된 대상 독자의 연령과 일치한다. 곧 『고사성어고』는 초학 교재이기는 하지만 『천자문』이나 『동몽선습』 등과 유사한 성격의 책으로 간주할 수는 없고, 사서삼경 및 역사서 등 기본적인 서적을 학습하고 나서 작문할 때 활용하는 '참고서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3) "夫學者之弄墨操毫, 未可以全心著力, 其於緊要有益於著述者, 不可不記之耳. 余少也, 嘗聞『故事成語』之可觀而未得, 庚午年間熙叔甫, 寫書一冊子, 乃昔卽願見之故事抄也. 槩玩集語之精密, 取類之廣博, 而知其明丘瓊山之力大, 有效於後世童蒙願學之士也. 況今熙叔, 年不過志學, 而眷眷於此等文字, 則女誠也, 可佳. 其筆之不精而不麤, 固可以磨而漸進於有爲也. 後之賞玩者, 勿爲忽遠, 如何? 歲之重光協洽太簇月, 桐塢序."

5. 맺음말

조선본『고사성어고』는 중국 서적이 일본을 거쳐 조선에서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출판문화사적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간본 100여 종과 사본 100여 종이 전할 만큼 조선 후기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서적 중 하나였다. 다만 이러한 정황이 확인됨에도 그간 단편적인 언급에 그쳐 그 자료적 가치가 거의 조명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는 현전하는 조선본『고사성어고』를 실사하여 국내외 판본의 서지적 특징을 다루고, 조선본 간본과 사본을 통해 간행 시기 및 유통 양상을 추적한 뒤 내용상의 특징 및 책의 효용과 대상 독자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확인되는 조선 간본『고사성어고』는 모두 동일한 계통으로 한 차례 重刊된 것으로 보인다. 단 초간본은 확인되지 않는다. 중간의 흔적은 13~26면의 보판된 면과 고려대 소장본의 배접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보판된 면의 경우 광곽이 사주쌍변이고 字體도 날카롭고 큼직하여 보판되지 않은 면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고려대 소장본의 경우 다른 간본과 달리 중간을 위해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접지가 확인된다. 이 배접지는 보판되지 않은 면의 자체와 유사하므로 초간본이 존재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선본『고사성어고』의 간본과 사본에는 간행 및 유통과 관련한 유의미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우선 책 전체를 시헌력의 뒷면에 인쇄한 간본이 있다. 확인한바 시헌력의 연도가 1764년과 1767년이므로 18세기 후반에는 이미 민간에서 대량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본 가운데 특히 국중 소장본의 경우 부기된 여러 정보를 종합해봤을 때 1735년에 전사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 무렵에도『고사성어고』가 국내에 유통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아울러 여러 사본의 筆寫記와 後識 등을 통해 주로 영남 지방에서 유통된 정황을 감지할 수 있다.

셋째, 화각본과 조선 간본을 비교한 결과 조선 간본에는 총 101건의 오류가 확인된다. 대부분이 의미 파악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민간 출판의 조악한 실상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럼에도 수많은 간본과 사본이 확인되는 점은

민간에서 상당히 유행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고사성어고』가 초학자의 문장 학습을 위한 유서로서 과거 공부에도 효용이 있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넷째, 대상 독자를 유추할 수 있다. 소수박물관 소장본과 국중 소장본에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성동의 나이, 곧 13세-15세를 대상 독자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대상 독자를 단순히 '초학자'로 간주한 것에서 좀 더 구체화하였다.

다만 본고에서는 조선에서 간행을 주도한 주체와 간행처를 밝히지 못하였고 내용적 측면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 향후 종합적으로 이를 고찰한다면 상업출판물의 성행 및 『고사성어고』의 효용과 관련한 논의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원전자료

丘 濬 著,『故事成語考』, 조선 간본 및 사본.
丘 濬 著,『故事成語考』 화각본, 일본 와세다대 소장.
三宅元信 編,『故事成語考集註』,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藤村德一 編,『故事成語考註解』,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
程登吉 著,『育正堂重訂幼學須知句解』,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
『大丘徐氏世譜』, 장서각 소장.

2. 단행본

강명관,『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 천년의 상상, 2014.
박영호 외 역,『國譯 蓬海帖』, 동양대 한국선비연구원, 2017.
임동석 역주,『유학경림』, 고즈윈, 2005.
장유승,『쓰레기 고서들의 반란』, 글항아리, 2013.
최 환,『한·중 유서문화개관』, 영남대 출판부, 2008.

3. 학술논문

김동욱,「방각본에 대하여」,『동방학지』11, 연세대 국학연구원, 1970.
김영선,「한국 유서의 서지학적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3.
심경호,「한국 類書의 종류와 발달」,『민족문화연구』4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옥영정,「非小說 漢文坊刻本 刊行에 대한 書誌的 고찰」,『열상고전연구』31, 열상고전연구회, 2010.
劉曉亮,「盧元昌著述考」,『杜甫研究學刊』127, 四川省杜甫學會·成都杜甫草堂博物館, 2016년 第一期.
王 丹,「『幼學瓊林』祖本系統考述」,『牡丹江大學學報』25,『牡丹江大學學報』, 2016, 第一期.
이윤석·성아사,「방각본『故事成語考』의 원천」,『영주어문』23, 영주어문학회, 2012.
최 환,「한국 유서의 종합적 연구(1)—중국 유서의 전입 및 유행—」,『중국어문학』41, 영남중국어문학회, 2003.
_____,「明代 '故事' 命名 類書 연구」,『동아인문학』24, 동아인문학회, 2013.

【Abstract】

A Study on *Gosaseongeogo* published in the Joseon Dynasty

Jang, Yeon-soo*

This article comprehensively reviewed *Gosaseongeogo* published in the Joseon dynasty and shed light on its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publishing culture. *Gosaseongeogo* is a encyclopedic work that provides all the specialties and historical facts from Confucian scriptures and historical books by category, for the purpose of cultivating basic knowledge and learning writing of the children around the age of 15. *Gosaseongeogo* published in the Joseon dynasty has a rare history that Chinese books were published in Joseon via Japan. However, basic details such as the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investigation of extant versions, publication period, target audience, etc. of *Gosaseongeogo* published in the Joseon dynasty have not been revealed. This paper focused on this point and proceeded with research, and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of all, it is presumed that the currently confirmed *Gosaseongeogo* published in the Joseon dynasty are all of the same series and have been reprinted once. The first edition has not yet been confirmed. And, certain printed copies and manuscripts contain important information related to publication, and it can be confirmed that printed copies have already been popular since the mid-18th century. In the case of distribution, it seems to have been mainly centered on the Yeongnam region. However,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Japanese and Joseon editions of printed copies, a large number of errors are found in the Joseon edition, and most of them are considered to be misprints by miscopying. Although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is hinders the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some contents, the fact that numerous printed copies and manuscripts exist proves that it has been quite popular as a commercial publication, and at the same time, that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people recognized *Gosaseongeogo* as a helpful book for studying the royal examination.

Keywords: *Gosaseongeogo,* commercial publication, encyclopedic works for beginner, *YuhakGyeongrim*, *YuhakSuji.*

접수일: 2023.06.30. ‖ 심사일: 2023.07.12. ‖ 게재확정일: 2023.08.20.

* Ph.D. Candidate, Dept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Sungkyunkwan Univ.